

## 신장이식 1,500예 : 단일 이식센터의 경험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, 외과\*

김진영 · 양철우 · 김수현 · 문인성\* · 박순철\* · 최범순 · 김용수 · 방병기

**목 적** : 신이식 환자의 특성과 임상적 경과를 파악하여 향후 내과적 및 외과적 문제들을 개선하여 이식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초석이 되고자 하였다.

**방 법** : 1969년부터 2005년까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서 신이식을 시행한 1,500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, 연령분포, 원인질환, 합병증, 생존율을 분석하였다.

**결 과** : 신수여자의 평균연령은 37세, 남녀 성비는 2:1이었고 신공여자의 평균연령은 38세, 남녀 성비는 1.44:1이었다. 원인 신질환은 만성 사구체 신염, 고혈압, 당뇨병 순이었다. 1차 신이식이 1,418예 (94.8%)였고, 2차 또는 3차 신이식이 82예 (5.5%)였다. 초기 면역억제제로서 Azathioprine, Cyclosporine A, FK506을 사용한 환자는 각각 157예 (11.7%), 1,072예 (79.4%), 117예 (8.7%)였다. 생체혈연 공여자는 867예 (57.8%), 비혈연간 공여자는 476예 (31.8%), 사체 공여자는 156예 (10.4%)였다. 조사 시점까지 이식신의 정상기능을 유지한 환자는 721예 (48.1%), 이식신 실패 297예 (19.8%), 이식과 관련이 있건 없건 사망한 경우는 277예 (18.5%), 타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추적소실된 환자는 205예 (13.7%)였다. 최장 358개월까지 신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, 이식신을 20년 이상 유지한 경우 22예 (1.5%), 15년 이상 114예 (1.5%), 10년 이상 생존한 경우는 298예 (19.9%)였다. 이식신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급성 거부반응 54예 (14%), 만성 거부반응 316예 (80%), 원인 신질환의 재발 5예 (1.3%) 순이었다. 전체 신이식 환자의 1년, 5년, 10년, 20년 이식 신 생존율은 각각 92%, 81%, 66%, 29%이었다. 사망원인으로는 각종 감염 87예 (31.4%), 심혈관 합병증 64예 (23.1%)가 가장 많았고 그 외 호흡기 질환, 간부전, 악성종양, 비뇨기계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. 환자의 1년, 5년, 10년, 20년 생존율은 각각 93%, 88%, 81%, 69%이었다. 합병증은 감염이 758건,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144건, 그밖에 대사장애, 심혈관장애, 간장애, 골격계 장애 등 전반에 걸친 합병증들이 있었다.

**결 론** : 과거 36년 동안의 신장이식의 임상적 고찰을 통해 신이식 초창기에 비해 이식신의 생존율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, 향후 생존율의 증가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